

광림 뉴스레터

KWANGLIM NEWSLETTER

등록번호 다-467 / 발행인 김정석 / 발행처 광림교회 서울 강남구 논현로 175길 49 TEL 2056-5600 / www.klmc.church



부요게 하시는 예수의 생명을 열방에 증거하는 교회

(고후 8:7~9)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선한 청지기

교회 창립 70주년 맞아 선교, 헌신과 나눔, 이웃 사랑 결단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벧전 4:10)

새해를 맞이해 광림교회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며 매년 1월 둘째 주일을 청지기 주일로 지키고 있다. 교회의 각 부서와 기관을 섬길 새로운 청지기들이 임명되었고 한 해 동안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헌신할 봉사자들이 세워졌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과 달란트를 생각하면서 복음 전파와 선교, 헌신과 나눔, 이웃 사랑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창립 70주년을 맞는 광림교회는 ‘부요게 하시는 예수의 생명을 열방에 증거하는 교회’라는 2023년 표어처럼 올해는 한걸음 더 나아가 거룩한 습관을 좇아 기도하며 예배의 성공자, 온전한 심일조, 전도의 생활화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의 삶을 권면한다.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광림교회는 매년 초 평신도 지도자를 위한 <임원

전지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1차는 집사를 대상으로 1월 4일~5일에, 2차는 권사를 대상으로 11일~12일에 진행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선한 말로 서로 격려하고, 더 깊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자는 김정석 담임목사의 말씀에 모든 참석자들은 “아멘!”으로 화답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2023년은 선교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미래의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교회와 지역 사회에 실천하며 예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상반기에는 경기도 화성에 동탄광림교회가 완공되고, 아프리카 잠비아 미션센터가 봉헌되어 지역 사회의 복음화를 위해 쓰임 받게 될 것이다. 다음 세대를 세우고 교회학교 회복을 위해 사이닝키즈·스쿨·유스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에게 믿음과 열정, 자신감을 불어넣고 영적 회복을 돕는 성령한국대회도 올해 개최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남선교회, 여선교회, 실업인선교회에서 수고하게 될 위원장들의 비전을 들어본다.

“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아 남선교회총연합회장이란 막중한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남선교회의 정체성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에 있습니다. 밖으로는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고 안으로는 선교의 역량을 키우는 선교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군 선교, 전교인체육대회, 선교회 모임 등 개체선교회 활성화를 목표로 달려가겠습니다.”

박기연 장로(남선교회총연합회장)

“2023년도 여선교회는 담임목사님의 목회비전

을 받들어 예수님의 생명을 증거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작년 동탄성전 건축에 집중하며 있을 수 없는 은혜로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이기에 힘쓰고 헌신해 주신 468개 체 회장들과 회원들, 35명의 연합회임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창립 70주년을 맞는 광림교회를 우리 손으로 끌고 댕고 고치기 위한 성전사랑 캠페인을 시작으로 예배를 지키고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헌신하는 여선교회가 되겠습니다.”

이화열 권사(여선교회총연합회장)

“2023년 실업인선교회는 함께 배우고 나누고 섬기면서 은혜와 감사로 채우고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아울러 젊은 비즈니스 리더(YBL)들을 세워 사회 봉사활동에 앞장서고, 담임목사님의 선교 사역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기도와 후원으로 준비하면서 더욱 내실화에 힘쓰겠습니다.”

권후원 장로(실업인선교회회장)

유병권 기자

2 광림의 강단
새 사람을 입은 자로 살라

3 광림 스토리
성가대 임명예배

4 하나님을 만나다
신임 위원장 비전과 다짐

6 믿음의현장
설 명절, 사랑의 돌봄 행사

7 다음세대
청년부 임원전지훈련

8 복음, 문화와 만나다
한눈에 명화로 보는 신약성경

새 사람을 입은 자로 살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행 9:15)

오늘 본문은 사울이 회심하여 바울이 되는 드라마틱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을 보면 이전의 바울은 본래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의 내면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을 향해 가다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때가 예수님께서 바울의 심령을 만지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만지시면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질그릇과 같은 불품없는 인생일지라도 우리 안에 주님께서 계시면 보배와 같은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사도 바울이 품었던 주님이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삶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더욱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삶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

사울의 발걸음은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당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 다메섹으로 피신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추격했습니다. 그의 여정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은 빛으로 임하시어 사울을 부르시고, 그를 만나주십니다. 이는 사울의 가치관과 신앙과 인생이 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살기등등했던 그의 눈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자신감과 확신에 찼던 그의 발걸음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박해를 위해 다메섹을 선택했지만, 이제 다메섹은 그가 변화되고 훈련받아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가 앞을 볼 수 없어 사람들의 손에 이끌리어 다메섹으로 갔을 때, 이미 주님께서는 그에게 도움을 줄 사람과 그가 행할 모든 일들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부르시어 환상 중에 사울을 소개시켜 주시고 그가 할 일들에 대해 말씀해주십니다. 하지만 누가 들어도 사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나니아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다.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15절)이라고



사도행전 9:10~19

10. 그 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는 것을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11.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12.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13.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게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14.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15.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16.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17.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18. 즉시 사울의 눈에서 바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니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19.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말씀하시며, 빨리 사울에게 갈 것을 재촉하십니다. 아나니아는 즉시 사울에게 가서 그에게 안수하고 형제로 맞아들이며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의 핍박자에서 형제로, 분노에 차있던 사람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자신을 잘 알았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돌아본다면 결코 예수님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강권적인 부르심 앞에서 그는 완전하게 변화되었고, 온전히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늘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신뢰하는 삶

판단을 내릴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자신의 경험과 지식, 또는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을 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본문의 아나니아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 사울이 변화되어 사도 바울이 되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사울이 결코 그리스도인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매우 포악하고 잔인하며 위험한 인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자신의 정보보다 예수님의 계획과 명령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의 주님의 말씀을 향한 신뢰와 순종이 없었다면 과연 사도 바울이 그토록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나니아는 한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해 많은 사람이 구원받도록 한 인물입니다. 우리에게도 아나니아와 같은 신뢰와 순종이 있습니까? 훗날 사도 바울은 아나니아에 대해 “올범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

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행 22:12)이라고 증거합니다. 그가 경건한 사람으로 칭찬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아나니아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전적으로 신뢰하며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내 생각, 내 방식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받은 은혜를 증거하는 삶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였던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만남의 체험, 아나니아의 기도와 돌봄을 통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결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 새로운 믿음의 시작, 새로운 구원의 시작, 그리고 새로운 역사의 시작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새롭게 시작된 인생, 그 인생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새롭게 해석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데, 먼저 과거의 상처, 부족함, 실패 등 부정적인 기억마저도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또한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더 나아가 불투명한 미래 가운데 불안했던 삶까지도 소망과 확신 가운데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다 보면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택함 받은 그릇으로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더욱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광림교회 담임목사 김 정 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담임목사의 설교 영상은 광림교회 홈페이지(www.klmc.church)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성가대 임명예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지난 1월 15일 주일 저녁예배에서 성가대 임명예배가 있었다. 음악위원회(위원장 장대진 장로) 주관으로 열린 성가대 임명예배에서는 미가엘·나사렛·갈릴리 성가대, 남성성가단, 여선교회 성가대, 미가엘 앙상블, 나사렛·갈릴리 오케스트라, 여선교회 성가대 앙상블, 광림남교회 가나안·새하늘 성가대, 가나안·새하늘 오케스트라, 광림서교회 시온 성가대, 광림북교회

시온·브니엘 성가대가 한 자리에 모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성가대원의 사명을 감사함으로 받았다. 이날 미가엘 성가대 128명, 미가엘 앙상블 8명, 나사렛 성가대 135명, 나사렛 오케스트라 44명, 갈릴리 성가대 160명, 갈릴리 오케스트라 41명, 남성성가단 70명, 여선교회 성가대 96명, 여선교회 성가대 앙상블 5명, 가나안 성가대 36명, 가나안 오케스트라 8명,

새하늘 성가대 41명, 새하늘 오케스트라 13명, 서교회 시온 성가대 17명, 북교회 시온 성가대 19명, 북교회 브니엘 성가대 15명, 총 836명의 성가대원이 임명되었다. 성가대원 시상식에서는 모범대원 22명을 표창하였고 은퇴대원인 새하늘 성가대의 조기숙 장로(20년)와 이광호 권사(15년)에게 재직패가 수여되었다.

또한 근속대원으로 40년을 근속한 갈릴리 성가대의 강인경 권사, 신순혜 권사, 임기중 권사, 임문영 권사와 30년을 근속한 미가엘 성가대의 이병규 권사, 염기현 권사, 나사렛 성가대의 유재란 권사, 윤성원 권사, 박호정 성도, 정상희 성도, 갈릴리 성가대의 유복희 권사, 최영민 권사, 송영진 권사, 여선교회 성가대의 이지성 장로, 이춘자 권사, 조병래 권사 등 총 16명에게 근속패가 수여되었다.

변영혜 기자

2차 임원전지훈련, 사명자로 새롭게 결단



광림교회 2023년 2차 임원전지훈련이 지난 1월 11일(수)부터 12일(목)까지 저녁 7시 본당 대 예배실에서 열렸다. 1월 4일(수)과 5일(목) 집사를 대상으로 실시된 1차 훈련에 이어 2차 훈련은 권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본당과 광림남교회, 북교회, 서교회 임원들이 참석했다. 해마다 연초에 실시되는 광림교회 임원전지훈

련은 하나님의 충성된 직분자로 청지기 사명을 받은 일꾼들이 한 해 동안 새로운 광림교회 목회 방향에 따라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중요한 시간이다. 2차 임원전지훈련은 김정석 담임목사와 최이우 목사(종교교회)가 강사로 나섰다. 첫 날 성령 부흥 집회는 최이우 목사가 '여러분은 성도입니다'(고전 1:1-9)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성도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져서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며, 예수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라며 광림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길 바란다고 했다. 둘째 날에는 김정석 담임목사가 "2023년 광림교회 표어는 '부요케 하시는 예수의 생명을 열

방에 증거하는 교회'(고후 8:7-9)로 정했습니다"라며, 올해의 5가지 목표는 선교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공동체, 미래의 교회지도자를 바로 세우는 공동체, 그리스도적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 예수의 생명을 누리는 공동체, 구원의 감격을 매일 경험하는 공동체라고 했다. 또 임원들은 헌금위원, 예배안내위원, 새가족 안내위원들이 지켜야 할 지침과 헌금할 때 지켜야 할 사항들을 안내받았고, 각자 달란트에 맞는 교회 부서에서 헌신을 다짐하는 봉사 신청서를 작성했다.

마지막으로 거행된 성찬식을 통해 임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것을 결단했다.

이정순 기자

2023년 장로 세미나

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아 장로들의 소임과 비전 나누



2023년 장로세미나가 1월 17일(화) ~ 18일(수)까지 강원도 고성에서 개최되었다. 코로나로 인하여 3년 만에 지방에서 개최된 장로 세미나는 첫날 실천신학대학원 조성돈 교수의 '우리는 새로운 세계로 간다'는 주제로 특강이 있었다. '코로나 이후의 한국교회가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여러 현상을 놓고 공감을

나누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해준 유익하고 의미 있는 특강이었다. 36명의 시무장로가 부부 동반으로 참석한 이번 장로 세미나는 김정석 담임목사의 특강과 성찬식, 기획위원회 회의, 장로 월례회 등으로 진행되었다. 특별히 김정석 담임목사는 "광림

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아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는 장로, 교인들을 시원케 해주는 장로, 평신도가 능동적으로 일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일꾼들을 키워주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장로들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장로 월례회에서는 장로들이 올해 해야 할 주요 사안에 대해 정보를 공유했다. 이어진 순서에서 은퇴 장로 5명에게 감사의 선물을 전달하고, 은퇴 장로들의 소회를 듣는 시간을 마련하여 시무장로들의 마음에 큰 은혜가 되었다. 세미나에 참석한 장로들은 '부요케 하시는 예수의 생명을 열방에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짐하고 비전을 나누었다.

박영준 장로(뉴스레터위원회 위원장)

포토 뉴스



2023년 상반기 속회공과
상반기 속회공과가 발행되었다. 빛의 숲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365+가정예배서
2023년 365 가정예배서를 빛의 숲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2월 온타임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2월 온타임이 발행되었다.

담임목사 동정



- 1/10 애즈베리 동문회
- 1/11~12 임원전지훈련 2차(권사)
- 1/12 서울남연회 감리사 신년월례회
- 1/15 성가대임명예배
- 1/17~18 장로세미나
- 1/20 감리교 군선교회 이사장 이취임예배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church

교회를 위해 헌신할 각 부서 신임 위원장들

2023년 1월 8일 청지기 주일에 교회의 각 기관과 부서를 위해 헌신할 위원장들이 세워졌다. 올해는 특히 예년보다 많은 권사들이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광림교회의 모범이 되어온 위원장들은 믿음의 청지기로서 섬김과 봉사에 최선을 다하기로 결단했다. '부요케 하시는 예수의 생명을 열방에 증거하는 교회'를 위해 앞으로 어떤 마음과 자세로 위원장의 직분을 감당할지 신임 위원장들의 비전과 다짐을 들어본다.



송화정 권사 <어와나 교육위원장>

어와나(AWANA)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에 감사를 드립니다. 33년간 초등교육 현장에 있던 저에게 다시 어린이들을 맡기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임명 발표가 있던 날 어와나(AWANA)교육위원회로 한걸음에 달려간 저는 말씀을 전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에서 젊은 날의 제 모습을 발견하고,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어린이들 눈동자 속에서 제가 가르친 많은 어린이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를 어와나로 부르신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지식 말고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린이들을 양육하라는 뜻을 말입니다.

어와나(AWANA)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이라는 뜻으로 영어성경(딤후 2:15) 말씀에서 첫 글자를 따온 이름입니다. 2011년부터 시작된 광림어와나는 10년이 넘는 동안 이곳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어린이들이 세상에 나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일인가요! 더 많은 광림어린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헌신 하겠습니다.



홍석진 권사 <유년교육위원장>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라"(엡 4:4) 광림교회의 이름은 숲속의 타는 불꽃을 의미하며, 이는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신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림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유년부 선생님들을 교사로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

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 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사 6:8)

부족한 한 교사로서 유년부 교육위원장을 맡게 되었으나 부르신 곳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섬기며 학부모님과 선생님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위원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인 유년부는 첫 신앙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이며, 기도와 말씀 읽기의 좋은 습관을 들이는 시기로 예배와 분반이 중요합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유년부에 맡겨주신 아이들이 신앙의 씨앗을 잘 심고 뿌리내려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양육하겠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예수님의 생명을 열방에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아이들에게 전하는 유년부가 될 수 있게 나아가려 합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순기 권사 <초등교육위원장>

초등부위원장의 귀한 직분과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회학교의 부흥이 광림교회 미래기에 교회학교 중심축에 있는 초등부에서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초등부'라는 슬로건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치관을 확립시켜

줄 수 있도록 말씀 양육에 집중하겠습니다. 세상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말씀에 뿌리를 내려 아이들의 영과 육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옥토 밭을 만들어주는 초등부가 될 수 있도록 아이들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조금은 위축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도움도 간절히 요청 드립니다.

아이들이 언제나 오고 싶고 기다려지는 초등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들도 모두 하나 되어 기도하며 말씀과 찬양,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초등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진우 권사 <소년교육위원장>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리로 파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소년부 위원장으로 부르심을 받고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은 두려움과 부담스러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귀한 부르심을 감당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제 청소년기는 많은 심리사회적 갈등으로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러한 갈등은 제가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 되었으나 심리적 상처로 남아 성장을 방해하기도 하였습니다.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담 및 세미나, 다양한 심리학, 철학책을 읽어 왔습니다. 이러한 다년간의 상담공부를 통해 심리적 상처는 상담이나 명상, 심리강의로 완벽하게 치유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 치유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의 공동체를 치유되는 공동체, 순종하는 공동체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사님과 소년부 부장 및 선생님들의 많은 기도와 헌신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맹경호 권사 <미가엘성가대장>

귀한 직분 주심을 감사드리며, 제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미가엘성가대는 주일 7시, 1부 예배를 돕고 있습니다. 주일 첫 예배에서 영감을 얻는 성가대 찬양으로 목사님의 말씀이 은혜롭게 잘 전달될 수 있는 영의 찬송이 되도록 기도

하고 있습니다. 매주일 새벽을 깨우며 성가 연습을 하고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성가대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기도합니다. 미가엘 성가대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연합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된 대원들 간의 소통과 사랑으로 화음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더 많은 청장년 성도님들의 봉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가엘성가대는 올해 광림교회 70주년 기념음악회 등 여러가지 교회행사에도 각 부서들과 연합하고 협조하며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시 150:6)



남기현 권사 <나사렛관현악단장>

매주일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사렛성가대를 섬기는 시간은 항상 저에게 큰 은혜와 감사였습니다. 지금까지 성가대를 통해 받은 은혜들을 이제는 나사렛오케스트라를 위해 섬기려 하심으로 순종하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부모님을 따라 광림교회

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여 광림교회 대학부 중창단을 통해 병원선교, 성탄 칸타타, 중창단 발표회로 찬양의 기쁨을 점차 알게 하였고, 이후 가정을 이루고 나사렛 성가대 봉사를 시작하며 찬양 은사의 중요함을 배우며 성장케 하셨습니다.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치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을 통한 은혜의 깊이를 알게 하신 하나님께 다시금 감사합니다. 이러한 경험들과 성령의 지혜 주심으로 지휘자님, 오케스트라 연주자 선생님들 그리고 성가대와 겸손히 소통하고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함으로 함께 중보 하며 주님께서 거룩하다 하심을 자랑케 하는 나사렛오케스트라가 되길 기도합니다.



신대연 권사 <광림남교회 남선교회연합회장>

'성령충만으로 사랑하며 섬기자!' 2023년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요케 하시는 예수의 생명을 열방에 증거하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 광림남교회 남선교회는 첫째 사랑과 헌신, 둘째 순종과 감사, 셋째 섬김과 봉사의 정신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실천하며 회원간의 친교와 신앙증진을 위하여 성령충만한 남선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30개 개체선교회의 모임과 부흥을 위하여 교육과 친교활동으로 남선교회가 적극 문제 해결에 앞장서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순종의 자세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광림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이하여 담임목사님의 목회 비전을 실현 하도록 기도하며 나아가 용인 동백 지역에 예수의 생명을 열방에 증거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남선교회가 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시험과 연단을 통해 더 성숙하고 더 견고한 믿음으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전 4:9)는 말씀 가운데 성령충만하여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남선교회 남선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 권사 <광림남교회 여성교회연합회장>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만군의 하나님,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귀한 달란트대로 세우시고 일하게 하시며 여성교회 임원으로 동백지구의 아름다운 광림남교회를 섬기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이곳은 지난날 믿음의 열정과 헌신으로 주

님의 몸 된 성전을 위하여 수고하고 교회의 역사를 귀히 여기며 애쓰셨던 귀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좋은 신앙의 모습을 통해, 체험과 간증을 들을 때면 마음에 뭉클함을 느낍니다. 그분들의 신앙의 참된 본을 배우고, 교회를 알리는 지역 사회봉사에도 참여하겠습니다. 특히 에스더와 마리아 개체 선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함께 노력하고, 주님이 끌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새롭게 세워주신 임원들과 최선을 다하여 한걸음 한걸음 담대함으로 교회의 마중물이 되어 일치된 순종으로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기도와 예배로, 신실한 믿음과 봉사와 헌신함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축복과 지혜를 공급받아 모든 선교회원들과 소통하며 협력하여 반듯한 여성교회로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장선희 권사 <광림서교회 여성교회연합회장>

광림서교회 여성교회연합회장으로 임명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1981년 광림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였고, 미국에 몇 년간 거주한 후 2017년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마침 집 근처에 광림서교회가 건축되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는 에스더회장의 직분을 주셔서 매월 본당 여성교회 월례회를 빠짐없이 참석하였고, 회원들에게 월례회 소식을 전하며

본당과 소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올해는 에스더 개체선교회장과 서교회 여성교회연합회장이라는 사명을 주셔서 기쁨과 감사로 더욱더 열심히 감당하겠습니다.

서교회 여성교회는 루디아1, 에스더1, 마리아2개로 총 4개의 개체선교회가 있습니다. 여성교회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서교회 자체 행사가 있을때는 여성교회가 주축이 되어 기도하며 돕는 자로서의 역할을 잘 해나갔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가 있지만 그 중 작년 춘계 바자회는 자체적으로 했고, 추계바자회는 본당 바자회에 참여하여 마리아선교회원들이 만든 레몬청을 판매하여 큰 호응과 수익을 얻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서교회 여성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회원들이 많아져 청라지구에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퍼지길 소망합니다.

광림교회 숨은 조력자 ①
상담선교위원회

법률상담, 김영훈 권사

지난해 12월 28일 당회 구역회에서는 교회 각 분야에서 봉사한 청지기들이 담임목사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그 중에서 상담선교위원회에서 오랫동안 봉사를 하고 있는 김영훈권사(1교구)를 만나 보았다.



광림교회에서 상담선교를 시작한 것은 1983년 실업인선교회에서 처음 상담실을 설치한 때 부터인데 1998년 상담선교회로 독립하여 운영되었으며, 성도들의 법률, 세무, 신앙문제 등을 여러 전문가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김 권사는 1981년부터 본교회에 출석한 이후 실업인선교회 시절부터 법률상담을 하고 있는 상담선교위원회의 산 증인이라고 같다.

광림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을 돌아본다면? 신혼 초 청담동 삼익아파트에 살았는데, 교회가 가까워서 나오게 되었다. 공직(관사)에 갔다보니 시간대기가 어려웠지만 전문성을 살려 법률상담을 계속하게 되었다.

상담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분야는? 보통 법률적 문제 전반에 대한 상담이 들어 오는데, 특정분야를 꼽는다면 부동산 문제가 많다. 매매에 관한 문제,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으로서는 또 임차인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것이다. 예전에는 재건축에 대한 상담도 많았다.

상담이 한번에 잘 해결되지 않는 경우는? 법이 자주 바뀌고 복잡한 것도 많기 때문에 상담을 지속하면서 시간을 갖고 내용을 잘 찾아보면서 다음에 또 올 때 자세히 답변해 드리는 경우도 있다.

보람이나 기억에 남는 상담이 있다면? 가족간에 법률적 분쟁이 있을 때 화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방향으로 상담을 하고, 또 상속분쟁시 양보를 하도록 해서 해결되었을 때 보람이 있었다.

상담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의료선교회의 의사가 처방전을 해 줄 수 없듯이, 상담선교회에서 소장을 작성하는 등 법률적인 절차를 진행시킬 수가 없다. 다만 유리한 입장일 때 소를 제기하라고 권유는 한다. 큰 테두리에서 결정할 때 지침을 주는 것이 그 역할이라고 본다.

김영훈 권사는 은퇴할 나이(78세)지만 이번에 감사패 수상을 계기로 더욱 감사하며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이득섭 기자

2023 광림교회 창립 70주년 기념 · 파워크리스찬 40주년 기념 정기공연

뮤지컬 THE 더 드림러 DREAMER

있는 자들

2023. 4. 21(금) - 23(주일) 오후 7시 30분

광림사회봉사관 7층 BBCH 홀 3일간 무료공연

목회현장

풍성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송양근 목사(9선교구)

교회의 중심에서 열방의 중심으로 부요케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9선교구는 끊임없이 창천을 이루는 햇빛처럼, 찬란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3년 새해에는 전염병의 장막이 거치고 거룩한 예배당에서 풍요로운 창조와 일치된 순종으로 신앙의 진일보를 이루는 선교구가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은 두려움을 벗어나 하늘의 역사가 이 땅에 쓰여지기를 소망하며 서로를 격려했던 한 해였습니다.

선교구 소속 26교구의 스테반 마리아 선교회는 한번도 빠지지 않고 매월 셋째 주 평균 6~10가정이 모여 삶의 애환을 나누고 위로하며 기도했습니다. 일상에서는 맘 기도회로, 직장인들은 줌 기도회로 신앙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친교를 위해 나왔던 이들도 신앙의 광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고 교회에 잘 정착하여 행복한 믿음 생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5교구에서는 새가족들의 삶에 귀한 회복과 새창조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고,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셨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한 청년과 담임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여 꾸준히 교회에 출석하며 성가대에 봉사하는 성도님, 잊고 살았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금 신앙의 불꽃을 태우고 있는 성도님 등 교회 출석의 경력과 상관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연말 선교구 성가제에 참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가장 큰 기도의 기적은 암투병 중 극적으로 기증자를 만나 간 이식을 받고 회복 중에 계신 권사님입니다. 교구에서 눈물 흘리며 서로 기도했던 결과 만나게 하였고, 치료 받게 하였고 지금은 회복 중에 계십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며 기도 중에 나타난 새창조의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늘 든든하게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과 행사에 재능과 자원을 아끼지 않고 헌신한 27교구가 있습니다. 빠지지 않고 속회로 모였으며, 주의 일이라면 최선의 섬김과 봉사로 임하여 믿음의 본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2022년은 사랑의 띠로 하나되어 지나간 어제 보다 다가올 내일을 기대하게 만드는 한 해였습니다.

할렐루야! 기적과 간증이 일상이 되는 새해! 풍성함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변함없는 진리 안에, 서로의 부족함을 타기보다 빈잔을 채우시는 성령님께 집중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광림남교회

“동백시립어린이집 친구들을 초청했어요”



지난 1월 8일 주일 광림남교회 유아 유치부는 동백시립어린이집 친구들을 위한 초청 잔치를 열었습니다. 총 15명의 친구들과 부모님이 함께 참석한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친구들을 환영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동백시립어린이집과 함께하는 예배를 다 마친 후, 광림남교회 유아유치부 친구들과 함께 매직 & 풍선쇼를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 동백시립어린이집 친구들과 원장, 교사들이 함께 참석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동백시립어린이집 원장은 “두 달 정도의 기간 동안 저희는 너무 편하게 아이들과 지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시 한 번 광림

남교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한 학부모들은 “광림남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좋지 않았던 인상이 거워지는 시간이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아이들의 웃는 모습과 즐거운 모습이 모두에게 기쁨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우리 자녀들을 통해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광림남교회 유아 유치부는 1세 ~ 7세 친구들이 생애 최초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며, 본격적으로 믿음이 자라는 곳입니다. 성부, 성

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며,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품 훈련을 받으며, 예배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세우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입니다.

앞으로도 다음세대를 이어갈 새싹들이 자라는 공간인 교회학교에 더욱 더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수진 전도사(광림남교회)

설날 앞두고 어려운 어르신에게 사랑 베풀어

사회사업위원회, 1월18일 사랑의 돌봄 행사 가져



사회사업위원회(위원장 최재환 장로)는 1월 18일 오전 5시 30분부터 설날을 앞두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사랑의 돌봄 행사를 가졌다.

광림교회에서 10여년 전부터 시작한 이 행사는 그동안 매주 실시했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매월 한차례로 변경되었다가 최근에는 격월에 한번으로 바뀌었다. 코로나 이후 장천홀 입구에서 어르신들을 맞았지만 추운 날씨를 고려하여 이날은 장천홀 1층 로비에서 행사를 진행했다.

봉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나온 유제석 목사는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광림교회 사회사업위원회가 올 한해도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거룩한 삶을 사는 회원들이 다 되기를 바란다. 오늘 이곳을 찾는 어르신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위

로하심이 임하기를 바라며, 이른 새벽 나와 수고를 하는 봉사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원한다”고 축복기도를 해 주었다.

지하철 도착시간에 맞춰 5시 40분쯤 두터운 외투에 모자와 마스크를 쓴 어르신들이 하나 둘 오시기 시작하더니 금세 많은 인원들로 1층 로비가 북적거렸다. 미리 사전에 행사 날짜를 알려 준 탓인지 평소와 다름없는 200여명의 어르신들이 찾아 왔으며, 이들에게 명절 떡과 사탕, দু유, 장갑 및 현금을 지급하였다. 선물 중에 성경구절로 포장된 사탕은 김명진 권사가 후원하고 있으며, 설날을 맞이하여 이날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안병철 권사(4교구)가 본사직원 3명과 함께 봉사를 하면서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후원했다.

안 권사는 “기업이 성장하는 만큼이나 남에게 베풀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

을 전할 수 있어 감사를 드린다. 회사 내에서도 일정 부분을 떼어 선한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데 타인에게 사랑을 베풀 때 더 큰 은혜가 찾아옴을 깨닫게 된다. 지금까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기업을 잘 운영하여 더 많은 사랑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10년 가까이 어르신 돌봄 봉사를 하고 있는 박영노 권사는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곳에서 이러한 행사를 중단하고 있지만 광림교회 사회사업위원회에서 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에 감사를 드린다. 예전에는 봉고차를 타고 단체로 오기도 하고, 다른 곳을 또 가기 위해 일찍 와서 서둘러 떠나곤 했는데 지금은 무리지어 오지도 않고, 갈 데가 많지 않아서인지 조금 늦게 천천히 오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특섭 기자

청년부 임원전지훈련

“부요케하시는 예수님의 생명을 열방에 증거하는 LFC (J.U.M.P)”



2023년 청년부 임원전지훈련이 지난 1월 7일 (토)에 청년부 교역자와 임원들을 대상으로 광림세미나하우스에서 열렸습니다. 청년부 부흥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청년들이 2023년 청년부의 목회비전을 받고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임원전지훈련은 ‘식탁의 교제’로 문을 열었습니다. 광림세미나하우스 근처에 있는 글램핑장에서 한 해 동안 청년부를 섬길 동역자들이 교구별로 식사하면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후 일정은 새롭게 리모델링을 한 광림세미나하우스 대예배실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개회예배에서 김주송 목사는 에스터 4장 6절의 말씀으로 “2023년에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에스터와 같은 믿음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에 후회 없이 헌신함으로, 공동체의 성장과 부흥을 경험하는 역사적인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청년부 임원들은 이어지는 리더십 강의를 통해서 MZ 세대 대화법에 대해서 배웠으며, 직

책별 워크숍을 통해서 임원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한 뒤 지역분장을 작성하였습니다. 교구 이름 짓기 시간에는 청년 1~5교구까지 각자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찾았으며, 한 해 동안 임원으로서 지켜야 하는 규칙(임원 십계명)을 세워져 발표하였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2023 청년부 목회 전략을 공유하며 청년부의 부흥을 함께 소망하며, 임원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으로 모든 훈련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번 LFC 청년부 목회 전략은 J.U.M.P 입니다. 4가지 실천 과제를 통하여 청년부의 성장과 부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J’는 Jesus Disciple Camp입니다. 올해부터는 상반기, 하반기 12주 과정으로 예수제자캠프를 신설하여 약 100명의 임원(제자)을 세웁니다. 두 번째 ‘U’는 Understanding(이해)으로서, 교회에 처음 나온 청년 새가족과 전도 대상자인 VIP에게 청년부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

는 안내서(브로셔)를 제작하여 배부합니다. 세 번째 ‘M’은 Mission(전도)으로서, 청년들이 속회별, 지역팀별로 상시 관계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사회봉사관 5층 테라스를 파티룸(글램핑장 컨셉)으로 만듭니다. 마지막 ‘P’는 Pastoral Care(심방)로써, 광림교회 전통에 따라 청년부 담당 목사는 청년부 임원들을 대상으로, 5개 교구 담당 전도사는 교구원들에게 대심방을 실시함으로 청년들을 영적으로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이 4가지 전략(J.U.M.P)으로 청년부 재적인원 1,000명, 예배 인원 700명, 속회 100개로 성장하여, 예루살렘(사랑트리 캠페인), 유다(국내교육선교), 사마리아(성령한국청년대호), 땅끝까지(해외100교회 건축, 해외단기선교)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임원전지훈련에 참여했던 왕범식 속장은 “청년 임원들과 함께한 임원전지훈련의 시간이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기 전에 불러 모아 당부하시면서 기도해 주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했다. 이 시간을 통하여 2023년 섬김의 자리에 파송되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었다”라고 전했고, 서강원 속장은 “직장이 있는 강원도 양양에서 임원전지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달려왔는데 함께 교육받고 공동체와 재미있는 교제의 시간이 감사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과 속회에 대해 다시 한번 뜨거운 열정을 가지게 된 것이 기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정영욱 전도사(청년부)

신앙 간증

나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

안녕하세요, 청년부 4교구의 속장으로 섬기고 있는 이동엽입니다. 저는 개발자이며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는 이성적이고, 논리와 분석을 우선시하며, 명확한 인과관계를 좋아합니다.

보통 제 생각과 고민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대학생이 되어 예수님을 알게된 이후부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인과관계도 없이 갑자기 어떤 생각들이 떠오를 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 행정실의 일처리 실수로 제가 피해를 볼 상황에 처했을 때, 화가 엄청 나다가 갑자기 문득 화를 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며 분노가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또 아무 생각없이 잘만 사용하던 불법 음악 다운로드 사이트에 대해 갑자기 죄책감이 생긴 적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질적이며 느껴질만큼 갑자기 제 안에 훑 들어왔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건 내 생각일리가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예수님의 임재를 강하게 체험했습니다.



아직도 저는 제 마음과 생각대로 진행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부어주실때면 꼭 멈춰서서 잠깐이라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도록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의 제 꿈은, 기술적 혁신을 이루어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목표 외에도, 가난이나 장애로 인해 교육의 기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제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어주시고 사랑을 알려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한걸음씩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동엽 속장(청년부)

샤이닝스쿨, 사회봉사관 3층 일부 확장 사용



방과 후 주중 돌봄프로그램 샤이닝스쿨, 믿음의 다음세대들에게 폭 넓은 경험 통째로 달란트 발견하도록 도와

다음 세대를 위한 광림교회의 비전인 샤이닝스쿨은 방과 후부터 오후 6시 40분까지 진행하는 주중 돌봄 프로그램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복음학교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사회봉사관 4층에 터를 잡고, 2017년 12명의 학생으로 시작한 샤이닝스쿨은 올해로 6년차를 맞았고 학생 수도 50명으로 늘어났다. 한 정희 사모와 목회자, 봉사자들의 헌신, 성도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점점 부흥하고 있는 샤이닝스쿨은 수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 그간 어려움을 겪었다. 얼마 전 3층 주차장

일부 공간의 용도 변경이 가능해지면서 50평 정도의 공간을 확보했고, 교실이 없던 두 학년의 보금자리인 개별 교실이 생겼다.

샤이닝스쿨을 담당하고 있는 임재철 목사는 “그동안 교실이 부족해 공간을 나누어 쓰거나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수업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3층 일부를 교실로 확장하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면서, “교회 70주년을 맞은 올해 샤이닝스쿨도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하나님과 매순간 동행하는 아이들로 양육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현행 교과를 체계적 시스템으로 마련해 미진한 부분을 보충하고, 강사간의 원활한 정보 교류를 통해 아이들마다

교육의 연속성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쓰레기 줍기, 전도 등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실천적인 신앙교육을 건고히 하고, 풋살대회 같은 행사를 통해 공동체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신설된 클라이밍 수업뿐 아니라 펜싱, 발레, 가야금 등 자라나는 아이들이 폭넓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신규 수업을 기획, 개발하는 일도 노력하고 있다.

광림교회는 미취학 아동 교육기관인 광림어린이집을 시작으로 샤이닝키즈, 샤이닝스쿨,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샤이닝유스까지 이어지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매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실천적 신앙을 배우고, 자신들이 수업을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주도적으로 학습하고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샤이닝스쿨은 현재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1학년 신입생과 5, 6학년 재학생을 추가로 모집하고 있다. 토요일에 운영하는 SSA 역시 수시로 인원을 모집 중이다.

등록 문의 02-2015-1178

한혜선 기자



한눈에 명화로 보는 신약성경 이야기 24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요 11:25-26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가 병에 걸려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 소식을 전했다. 예수는 나사로와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였다. 그런데도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이 지나서야 제자들에게 유대르 돌아가자고 말하였다. 여리고 성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한 예수와 제자들은 이틀 만에 베다니에 도착했다. 그러나 나사로는 이미 세상을 떠난 지 나흘째였다. 많은 사람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했고, 자매는 슬픔에 젖어 지내고 있었다. 마침내 예수가 오신다는 소식에 마르다는 마중하러 나갔고, 마리아는 집에 있었다.

마르다는 설움이 북받쳐 예수에게 말했다. “주님, 조금만 빨리 오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이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들어주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가 마르다에게 말하였다. “네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는 슬퍼하며 말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제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을 제가 압니다.”

이에 예수는 다시 마르다에게 말하였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자 마르다는 서슴없이 대답했다. “믿습니다. 주님은 메시아이시며,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한 뒤에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를 부르러 가겠다고 달려갔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동네 어귀에 도착했을 때 예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마리아는 예수를 보자 그의 발 앞에 엎드리며 말했다.

“주님이 여기 계시기만 했어도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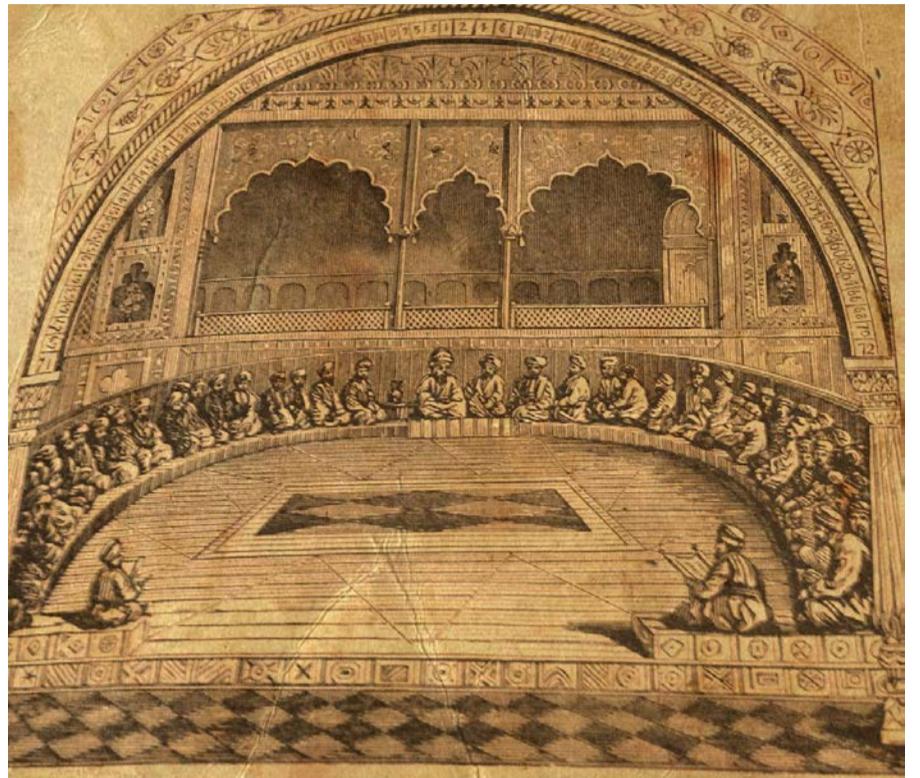
예수는 마리아에게 물었다. “그를 어디에 묻었느냐?”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와 그녀를 따라온 사람들은 앞장서서 예수를 나사로의 무덤으로 인도했다. “주님, 와서 보십시오.”

예수는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은 말했다. “보시오, 저분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 준 분이 왜 나사로가 죽지 않도록 하지 않았을까?”

예수와 나사로의 관계를 아는 사람들은 여러 말로 수군거렸다. 당시 유대의 무덤은 동굴인데, 입구가 돌로 막혀 있었다. 예수는 큰 돌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돌을 치워라.”

곁에 있던 마르다가 대답했다. “주님, 이미 악취가 납니다. 오빠는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되었습니다.” 낙심한 마르다에게 예수가 말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돌을 치우자 예수는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기 시작했다. “아버지, 제 청을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언제나 제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것을 압니다.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청합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을 이 사람들로 믿게 하여 주십시오.”



▲ 산헤드린 회의(Sanhedrin)_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 회의는 구약 시대에 모세가 임명한 70인의 장로회에 그 기원을 둔다. 대제사장이 의장으로, 공회원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제사장), 그리고 서기관과 장로 등 유대인들의 대표들로 구성되었다. 로마제국의 통치하에서도 정치 문제(사형권)를 제외하고 이스라엘의 입법과 사법을 총괄했으며, 모든 안건은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산헤드린은 주로 율법을 해석하고, 종교 재판을 주관하며, 성전의 치안을 유지하는 문제들을 다루었다.

그런 다음 예수는 무덤을 향하여 큰소리로 외쳤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무덤에서 나사로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는 장사 지낸 모습 그대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베로 감고, 얼굴에는 수건을 덮은 모습이었다. “마음대로 움직이게 그를 풀어 주어라.”

예수의 말에 사람들은 나사로를 감싸고 있는 베를 풀어 주었다.

죽을 것을 예언했다. 그날부터 그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했고, 유월절 전에 예수를 잡아 죽이자는 데 의견이 일치하였다.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었고, 이미 예루살렘은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붐비기 시작했다. 예수의 소문을 들은 그들은 예수에 대해 궁금해했다. 그러나 예수와 제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며, 예수는 광야에 인접한 에브라임에서 제자들과 머물렀다.

한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든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거든 자신들에게 알리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들은 예수를 붙잡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예수는 그들을 피한 것이 아니라 죽을 때가 아니라서 떠났을 뿐이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하던 전날 밤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출입문에 발라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지나친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에, 예수는 만인의 죄를 대속하는 피를 흘리고 죽게 되어 있었다.

광림뉴스레터



▲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집을 찾은 예수 그리스도_ 절친한 나사로의 여동생들과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이후 나사로의 위독한 소식을 전해 듣는다. 알렉산드로 알로리의 작품

예수를 향한 유대인들의 음모 요 11:47

예수가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키자 더욱 많은 사람이 예수의 복음을 추종하기 시작했다. 한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은 한자리에 모여 예수를 어떻게 할지 의논을 거듭했다. 그들은 산헤드린 회의를 소집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가 계속해서 일을 벌이며 하나님의 표적을 일으키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대로 두면 조만간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될 테고,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권력과 특권을 빼앗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서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말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겠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민족 전체가 멸망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낫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말이오? 이제는 예수를 죽이는 수밖에 없소.”

이것은 가야바가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 대제사장으로서 뜻하지 않게 예언한 것이다. 그는 예수가 민족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흠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서 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빛의 숲 서점 판매 중

※ 게재된 글의 저작권은 출판사 아이템하우스에 있으며 광림뉴스레터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